

# 모든건에 누리 없이 자기가 한 것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습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았죠? 그러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돌아왔느냐. 생명이야 돌아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들이 그렇게 계실지언정 내 마음은 항상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공했으니, 거기다가 일배를 하든지 삼배를 하든지 칠정례(七頂禮)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의 여유가 있는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일정례(一頂禮)를 하고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하고, 더 급하지 않으면 삼천 번을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자유죠. 자유스럽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 해야지, 만약에 마음이 급한데 이거를 꼭 삼천배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겠냐고 하지 않고, 일배를 하란다고 일배를 하고 썩 돌아서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한 대로이니깐요. 에누리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큼 나한테 오는 거니깐요. 그렇다고 또 많이 하거나 하면 되는 줄 알지 마세요. 삼천배 한 생각만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칠성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지장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관세음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산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해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주립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지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모두가 한마음이니 마음은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다 아내가 됐다 또 형님이 됐다 동생이 됐다 사위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습은 한 모습인데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찰나찰나 나투면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자유자재하시고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니까 겉모습만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스님네들을 보고도 겉모습, 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고 내 마음부터 알아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내 마음부터 아시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부터 알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거라고 항상 말씀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씨를 심어서 콩나무로 화했다면 콩씨를 어디 가 찾습니까? 네? 콩나무로 화했잖아? 화한 콩나무가 여러분 몸이라고 볼 때에 콩나무에 콩씨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콩나무에서 콩씨를 찾아야지 과거로 돌아 가서 찾는다거나 미래로 돌아 가서 찾는다거나 어디 두리번거리고 찾는다거나 이런다면은 그거는 정작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도 그 콩씨와 다름없는 애입니다.

수박도 이 수박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관하고 화두를 삼아서 이거를 굴리다가 보면은 그속에 씨가 들었는지, 맛이 어떤지 그걸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죽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내일 죽은들 어쩔고 오늘 죽은들 어쩔고 모래 죽은들 어쩔고 안 죽은들 어쩔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 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합니다. 또 그냥 속성적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난 게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또 화두를 붙여서 찾았다면은 얼마나 그게 미저한 짓

## 이 수박을 화두로 삼아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를 굴리다 보면은

그 속에 씨가 들었는지,

맛이 어떤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리 겁납니까?



입니까? 그래서 화두를 갖는다 하더라도 화두도 거기 놔야 됩니다. 화두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 그러다면 10년 20년 가도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공했기 때문에 찾게 하고 버릴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쥐지 않을 것도 없는 그런 공한, 바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같이 먹고 있는, 이 내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통 속을 벗어나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을 각 사찰에 모셔놨

든 신중당을 모셔놨든, 하다못해 돌을 모셔놨든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진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하는 대로 가는 거니깐요. 허허,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낮은 것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각자 찾으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뱃사공한테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뭇물 하나 물건을 사려고 공장에 갔다 한다면 공장 주인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치과에 었그저께 갔더니 정말 그 치과의 박사가 으뜸입니다. 네? 하하하. 그러니까 이게, 낮은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으뜸이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백을 치면 봉장이 올라야지!'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은 백문선이 헛문선이죠. 그러니 내가 부처할 것은 어느 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두 일불(一佛)의 한 생각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 한마음과 일체불의 한마음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일배를 올린다면 천배 올린 것보다 수확이 좋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 부처에도 뇌야 하고 저 부처에도 뇌야 하고,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영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또 삼재가 들었으니 언짢으면 어쩌나?'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살림에 몇 푼 가지고 가서 요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놓으려면, 어떤 때는 모자라서 그냥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게슴츠레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인데, 한 부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모두 거기 계신 분들을 한마음으로 모시면서 지극하게 하시고요, 없으면 지극하게 나오시고요, 또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 절에 다 놓더라도 한마음으로써 놓으시고, 또 웬만하면은 그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서 주지스님한테 "모두를 다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다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 갖다놓으니까 산 부처님한테 갖다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백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면 백만 원을 꼭 줘야 합니다. 오십 원짜리 사러 갔으면 오십 원짜리는 꼭 오십 원짜리를 줘야 합니다. 오십 원을 주면은 오십 원짜리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돈을 스님한테 준 사이도 없고 부처님한테 갖다놓은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져간 사이도 없죠. 부처님이 준 사이도 없고 스님네들이 준 사이도 없죠. 그래서 준 사이도 없고

가져간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법당에 가 보면 인등을 많이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수억갑을 걸어오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된 그 사실의 겁을 어떻게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등을 해냈을 때 마음의 인등을 견거는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꺼지지 않지만 그냥 등등에 불 켜놓은 거는 비바람이 치면은 꺼져요. 요새는 또 전기 전력으로도다 켜놓는

오늘 죽은들 어떨고

내일 죽은들 어떨고

모래 죽은들 어떨고

안 죽은들 어떨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 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거니까 전력만 나가면 그냥 꺼지죠. 하하하. 그런데 마음의 등불은 전력이 나갔든 비바람이 치든, 여수 정마가 들든 물에 잠기든, 산속으로 들어가든 그거는 상관없이 꺼지지 않는 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있는 것이 그 인등이지 여러분이 돈이나 몇 푼 스님한테 갖다 던져놓고 그것 켜달라고 쫓지나 붙여서 켜놓는 게 인등이 아닙니다. 그건 도깨비등이지 인등이 아니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 하면 어느 스님네들은 날 욕을 하겠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이거를 자세히 말을 하려면 길어서 이진 끊어버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세번째로 이제 지금 위패를 다 붙여놓습니다. 위패를 붙여놓는데 지금 시대에 그게 걸맞습니까? 첫째, 걸맞지 않고 둘째, 또 우리가 고상치도 못한 데다가, 영령들을 조상님들을 모실 때 그것은 모셔서 비틀어 매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에 부모들을 모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다가 두어 놓고는 그냥 그냥 자기네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을 끄떡 못하게 위패를 해서 붙여놓고선 그냥 자유롭게 나고 들지 못하게끔 해놓는 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조상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또 조상이 되고 자식이 되고 조상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 공공공쳐 놓고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낼 때 부모를 모셔다가 대접하고서 그냥 또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게끔 위패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릴 때도 물을 큰 그릇에다 떠다 놓고 향 위패를 초 켜놓고 태워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을 가두어나도 죽겠느냐 살겠느냐 하고 뺨꾸러 나가고 야단들인데 아, 체가 없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즉 조상이고 조상이 즉 우리들이니깐요. 그렇게 해놓는다면 그 조상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천도를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잘 차려서 이렇게 해놓는다면 '너는 언제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쓰고 단 거를 먹어가면서 고생을 해라.' 하고 묶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은 되남았느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짜고 달고 그런 거, 맛이 없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쫓차려놓고선, 자꾸 관습에 얽매고 집착에 얽매고 그러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가 지금 너무나 많습디다.

선종이 많이 태어나야 될 텐데, 모르는 어리석은 악종이 많이 태어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5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안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교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칠성상회 복합기 사은할인 판매



### OKI MB471 DN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 (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20,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 (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 68,000원 (용량: 4,000매)

임대시 : 4만원/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 OKI MC561 DN-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 (컬러복사/인쇄/칼라스캔/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6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 (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 105,000원\*4색 (용량: 5,000매)

임대시 : 5만원/월